



성폭력 상담소



◀ 이임하는 상담소장 박분이



취임하는 상담소장 류복연 ▶



◀ 성폭력 예방거리 캠페인(7.22)

- 여기는 상담실입니다 “저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 2011년 상반기 상담통계
- 성희롱 예방 이렇게 해요
- 씨올 여성회 봉사활동
- 제9기 성교육 전문강사양성교육을 마치며
-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 성폭력예방 인형극 공연후기
- 상담소 활동



“저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 상담자**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내담자** 네, 저와 같은 사람도 상담 해주나요?(굵직한 남자 목소리)
- 상담자** 네, 무슨 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어렵지만 이야기 해 줄 수 있나요?
상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니, 편안하게 말씀하시도 됩니다.
- 내담자** 네, 저는..... (긴 침묵)
- 상담자** 남학생 맞으시죠. 어렵게 상담 전화 하신 것 같은데 천천히 말을 해도 되니 긴 숨을 한 번 내쉬고, 한 번 해보시겠어요.
- 내담자** 네, (한 참 만에 긴 숨인지 한 숨 인지 내쉰다.)
- 상담자** 네, 참 잘했어요..
학생이 상담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처음에 학생 같은 사람도 상담을 해 줄 수 있는지 물었는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말 할 수 있겠어요?.
- 내담자** 네.....(아주 작은 목소리) 저는 남학생이며, 고등학교다니고 있습니다.
- 상담자** 네, 그러시군요.
학생이 고민하고 있는 일은 부모나,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일인가요?
- 내담자** 네, 엄마와 이모가 알고 있고, 아빠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 상담자** 네,~ 엄마와 이모는 알고 있는 일인데 학생이 전화를 해서 상담을 원하는 것 맞는지요?

- 내담자** 네, 제 일인데요.(말을 하려는 결심이 느껴짐)
제가.....(머뭇거림)몇 주전에 성폭행을 했어요.
- 상담자** 네~~ 그렇군요. 용기를 내서 어려운 말을 할 정도로 많이 힘들셨겠어요?
- 내담자** 네(긴 한숨)많이 힘들어요.
- 상담자** 그래요. 학생이 많이 힘들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학생을 가장 힘들게 하나요?
- 내담자** 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죽고 싶어요.
- 상담자** 지금 학생이 많이 힘들때 상담전화 참 잘했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어 하는 것은 그 만큼 학생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걸 잘 알고 있군요.
좀 전에 엄마와 이모가 알고 있다고 했는데 전화상담도 학생 스스로 했나요?
- 내담자** 아뇨. 엄마와 이모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저도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전화하게 되었어요.
- 상담자** 그래요. 학생이 그런 마음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질문하면 대답해 줄 수 있어요?
- 내담자** 네
- 상담자** 학생이 몇 주 전에 성폭행을 했다고 했는데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 내담자** 응.....(아주 작은 목소리)사촌여동생요.
- 상담자** 네~, 그렇군요.
사촌여동생이 좀 전에 말한 이모의 딸이고, 사촌여동생이 이모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엄마도 알게 되었군요.
- 내담자** 네,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정신이 멍한 상태예요.
- 상담자** 네, 학생도 그 일로 충격을 많이 받아 아파하는군요.
그렇지만 성폭행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했고, 또 무엇이 학생을 힘들게 하나요?
- 내담자** 네, 사실은 제가 그 일 있었던 날 바로 여동생과 엄마, 이모에게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겠다고 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 상담자** 네, 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 시인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받아주지 않아서 더 힘들고 지금도 죽고 싶은 마음이 있군요?
- 내담자** 네, 너무 창피하고 제 스스로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고, 앞으로 용서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요.

상담자 네, 그래서 학생이 많이 힘들어 하군요. 학생이 힘들어 하는 만큼 지금 사춘 여동생은 더 많이 아프고 힘들어 할 거예요. 이런 여동생에게 성폭력을 어떻게 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내담자 네.....(한참 망설임)
자고 있는 한 살 아래 여동생 몸을 만졌어요.

상담자 네, 그렇군요.
여동생 몸을 만졌다면 몸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만졌다는 거예요?

내담자 네, 여동생 가슴과 성기부분을.....

상담자 네, 학생은 여동생의 가슴과 성기부분을 만졌다는거죠?

내담자 네,

상담자 학생의 행동은 범죄행위로 이모나 여동생이 신고하지 않았어요?

내담자 네, 신고하지 않는 대신 상담을 받으라고 했어요.

상담자 네, 그로 인해 상담을 필요로 하군요. 학생의 행동은 분명히 성폭행이고, 그로 인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본인이 원망스럽고 죄인같은 마음에 충분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군요.

내담자 네, 저는 정말 너무 괴롭고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제 자신을 알고 싶어서 심리검사 와 상담을 받고 싶어요.

상담자 네, 그래요.
학생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고 검사도 받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것은 앞으로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결심인 것 같아요. 엄마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진행 할 상담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저희 상담소에 함께 내방 할 수 있겠어요?.

내담자 네, 엄마와 상의 한 후 빨리 상담 받고 싶어요.

상담자 네, 그동안 많이 힘들었고, 아마 앞으로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 받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거예요. 빠른 시일 내 오셔서 지속적인 상담이 진행되길 바라게요.

내담자 네, 잘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때 전화하세요. 031)797-7032

* 상담은 무료입니다.



2011 (상반기) 상담통계 현황

1. 상담 통계(1월~6월)

1) 상담 내용

1월부터 6월까지 총상담 266건수로 성폭력은 137(52%), 기타상담 129(48%)은 가정폭력, 이혼, 부부갈등, 성상담, 가족문제, 기타로 집계되었다.

구분	계	성폭력 상담	기 타 상 담								
			소계	가정 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 갈등	성상담	가족 문제	중독	기타
계	266	137	129	24	0	2	37	38	18	0	10

2) 상담 의뢰인/상담 방법

1월부터 6월까지 상담의뢰인은 266건으로 본인 129건(48%), 가족 및 친인척 21건(8%), 동료·이웃·교사 4건(2%), 기타 30건(11%),이주여성 82건(31%)로 집계되었다. 상담방법으로 내방 66건(25%), 방문 29건(11%), 전화170건(64%)집계되었다.

구분	계	상담의뢰인					계	상담방법				
		내국인				외국인		내방	방문	전화	사이버	기타
		본인	가족 친인척	동료 이웃교사	기타							
계	266	129	21	4	30	82	266	66	29	170	1	0

3) 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1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에 대한 지원내용 266건은 심리정서지원 237건(90%), 수사법적지원 24건(9%), 의료지원 1건, 기타 4건 집계되었다.

구분	계	심리정서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지원	시설입소 연계	기타
계	266	237	24	1	0	4

성희롱 예방 이렇게 해요.

👉 성희롱의 정의와 성립요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말함<<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 성희롱예방의 필요성

- ▶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부정적 인식이 잔존
 - 남성의 성희롱은 실수, 여성이 당한 성희롱은 행실이 잘못이라는 인식
 - 피해사실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은폐
- ▶ 직원 상호간의 의사소통 불일치 및 존경과 신뢰감 부재
 - 직장상사, 동료 등 성적 접촉을 시도할 때 강력한 반대외사를 밝히지 못하는 여성들 태도와 그럴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직장문화
 - 반대외사를 표시하여도 일방적인 가해자 위주의 판단이 성희롱으로 확대
- ▶ 합리적 해결 위한 창구의 부재
 - 기관장의 성희롱 예방에 대한 관심도 저조 (주요업무에서 제외취급)
 - 피해자, 가해자, 조사자 등이 모두 같은 직원으로 사실을 은폐 할 가능성

👉 성희롱 발생 시 부정적인 영향

- ▶ 피해자의 업무수행 방해 및 업무 능력 저하로 인한 조직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
 - 인사관리 비용의 증대, 직원간의 혼란과 시간 소모적 다툼 야기 등 조직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하여 공공기관·회사의 이미지 실추
- ▶ 성희롱 피해자가 이직할 경우, 투자비용 상실, 대체인력 고용을 위한 경비 투입 등 조직의 손실 초래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및 노동생산성 증대를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와 대외 이미지 실추방지 등
- ▶ 공공기관·기업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인식이 필요

👉 성희롱예방을 위해...

- 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2)에 국가기관 등의 장 및 사업주의 성희롱 방지 의무를 명시 같은법 시행령(제27조의2)을 통해,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강화
 - 성희롱 예방교육
 -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 제출 (매년 2월말까지)
 - 부진기관에 대한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씨을 여성회에서 봉사활동

- 스스로를 되돌아 볼 수 있었던 거리캠페인-

김도희 (경안중학교 1학년7반)



▲ 구호를 외치고 있는 김도희 (첫번째 왼쪽)

이번에 봉사 시간을 위해 성폭력예방 거리행진에 참여했다. 원래 행진의 의도와는 다르게 참가한 학생들 중 대다수는 봉사활동

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옵션으로 붙는 자원봉사 시간을 보고 참여했을 것이다.

애당초에 참여 자세가 목적과 어긋나서 행진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았다. 또 씨을 여성회에서 나눠주는 볼펜이나 물티슈도 요즘같이 철저한 개인주의 사회에서 제 같길 바쁜 사람들에게까지 나눠주는 물건을 받을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피켓을 들고 행진하자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봤고 생각보다 나눠 주는 물건도 많이들 받아주셨다.

아마 누구나 자신이 사는 곳의 환경에 대해 불만을 품은 적이 있을 것이다. 또 그로 인해 짜증도 났을 것이고, 하지만 짜증을 낸다고 변하는 것은 없다. 삭막한 개인주의 사회에서 사회문제는 늘어만 간다. 그러한 사회 문제들은 한 두명이 발 빠르게 움직여 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거나 하루 아침에 결판이 날 문제들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움직여줘야 비

로써 해결을 볼 수 있다. 이번에 한 행진이 비록 정돈 되거나 체계적인 집단에 모습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행진을 목격한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우리가 피켓에 내세웠던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물론 행진 한 번으로 해결이 될 문제들은 아니었다. 폭력없는 '클린광주'란 타이틀은 아직은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래도 그저 문제라며 불만을 토로한 것 보단 직접 발로 뛰면서 문제에 대해 피부로 느끼며 다른 이들에게 문제의식을 심어준 것은 나쁜만 아니라 모두가 서로에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헛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현재 우리세대에 문제의식 수치는 현저히 낮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 나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서로 문제해결을 위해 힘써줄 범위를 넓히는 것은 사회문제 해결에 지름길 일 것이다.

이번 행진은 시간도 짧고 영역도 좁았다. 그래도 나 스스로도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 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문제의식을 전도 시킬 좋은 기회였다. 이번 일이 행진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생들이 다른 활동에도 참여 할 기회를 제공하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면 우리가 땀흘리며 걸어다닌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닐 것이다.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번 활동이 나한테 이런 생각들은 하게끔 기회를 제공해준 것이니 나는 씨을 여성회 거리캠페인 봉사 활동에 만족한다.

제9기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을 마치며...

1979년에 포천에 있는 고등학교에 초년생으로 부임했다. 나에게 말만한 고3 여학생 담임이 맡겨졌다. oh, my god!!!

그곳은 민간인보다 군인 보기가 더 쉬운 군사 구역이었고 많은 아이들은 버스도 가지 않는곳에 살았다.

어느 날 반장 아이가 000가 성폭행을 군인에게 당한 것 같다고 귀뜸을 해줬고 난 아이가 찾아오기만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았다. 말하기도, 아는 척 하기도 곤란했던 나는 피를 하나냈다.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동네 의사선생님을 모시고 성교육을 하고 싶다고 했고 교감선생님은 펄쩍 뛰셨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것이었다. 설득에 또 설득으로 간신히 성교육을 하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은 참 무시무시한 사진(성병)들을 들고 와서 교육을 해주셨다..

며칠 후 아이는 몸에 이상이 있어 진찰을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 혹시, 임신이면 어쩌나 마음을 즐였는데 다행히 질염이었고 상태가 심해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고 모든 것은 비밀로 부쳐졌다. 아이는 졸업을 얼마 앞두고 가출을 했고 그후로 다시는 학교에 오지 않았다. 동대문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았다는 아이들 얘기로 만족해야했다.

배 기 명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수료생)

왜 그렇게 몰랐을까? 지금도 교사로서의 무능함에 얼굴이 붉어진다. 그것이 성교육전문강사 양성 교육을 받게된 원초적 계기는 아닐런지....

이제 2011년 나는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세상은 항상 예쁘고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연일 신문이나 TV에서 성추행, 성폭행 얘기가 보도되고 법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나아지는 것은 없어 보였다. 조금이라도 내가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씨올여성회 문을 두드렸다. '시작이 반' 이고 '늦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르다' 고 했다.

내가 만약 다시 교단에 선다면 다른 것 보다 꼭 알려주고 싶은것이 있다.

'NO', '싫어요', '안돼요', '하지마'

부정적인 말이지만 이 말들이 아이들을 성추행, 성폭행에서 벗어나게 해줄거라고 꼭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RIGHT NOW!!

임 복 희 (제2기 성교육 전문강사)

중학생 4명 후배 폭행 및 성추행. 성폭행 뒤 "마음에 들면 쪽지 남겨 달라". 아이 옆에서 성폭행. 청소년 가수 지망생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목사가 입양 딸 10년 동안 성추행. 나이트클럽서 미 여군 성폭행한 20대. 장애학생 성추행한 장애아 아버지.

'논문지도' 후배 성폭행한 서울대 대학원생. 전자발찌 차고 이웃 성폭행한 20대. 대학 캠퍼스 연쇄 성폭행 40대. 의대생들 동료 술 먹고 집단 성폭행. 박희태 국회의원 "국회 성추문 루머 사실 확인 조사 지시".



오늘 하루, 인터넷 뉴스에 올라온 성폭행 관련 머리기사들이다. 중학생부터 4,50대까지, 학생부터 국회의원까지 나이와 직업을 가리지 않는다. 심지어 예방책이라고 부착해 놓은 전자 발찌를 찬 채로 성폭행을 한다. 후우~~ 마음이 답답하고, 끔찍하고, 급해지고, 화가 나고 그리고, 그리고 또 그리고.....

우리(성교육 강사)는 일주일에 한번씩 모임을 가진다.-사정상 미루어지고 빠지기도 하지만-주제를 정해 토론을 하고, 성교육 방식에 대한 의견들을 주고받고, 자료를 찾아 정리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의논한다. 대상에 따른 내용의 변화와 방법의 다양화도 생각하고,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하고, 넘쳐나는 잘못된 정보들 속에서 진실을 알려주고자 노력한다.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법도 인지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언제나 그들 곁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게 마음의 준비도 한다. 배우고 익히고 또 익히며, 부족한 것을 채우고 더 나은 강사가 되기 위해, 항상 준비된 강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글머리에서 보여주듯, 넘쳐나는 사건과 미약한 처벌 소식을 듣게 되면 가슴 저 아래 쪽부터 짜릿한 아픔이 올라온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왜 이리 법과 제도는 항상 뒤떨어지는 것일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왜 항상 성에 관한 범죄만큼은 피해자가 고개 숙이고 가해자는 당당하고, 그것을 판결하는 판사들에게 화가 나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왜! 왜! 왜!! 화내고 울부짖고 눈물을 머금고 다음을 기약하며 돌아서야 하는가?



우리의 모임은 한 숨과 걱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음이 너무나 더더서 화나고 안타깝지만, 그 발걸음들이 모여서 큰 발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화나고 속상한 마음 다독이고 돌아서고, 그 마음을 추슬러서 다음 주에 또 모이고 의논하고 공부한다. 그 한 숨과 눈물과 안타까운 마음이 헛되지 않기를 기

도하면서 오늘도 자료를 찾고, 대안을 준비한다.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진짜로 마음껏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남들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만, 우린 그러면 안 된다. 지금 당장 준비하고 대비하고 눈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

바로 지금부터 RIGHT NOW!!



성폭력예방 인형극 공연 후기

이 혜 영 (광주씨울인형극단 총무)



▲ 왼쪽 첫번째 이혜영 단원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씨울여성회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고 있는 많은 좋은 일들 중 인형극을 통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것에 같이 동참하고 싶었다.

평소 끊이지 않는 아이들의 성폭력에 관한 뉴스들을 접할때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정말 화가나고~~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선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느낄때가 많았다. 그리고 제대로 아이들을 사전에 교육시키지 못한 어른들의 잘못이 더 큰건 아닌가 생각했었다.

성폭력예방 교육을 막연히 이론으로만 한다면 어린아이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때가 많은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극을 통해 내용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하여 알려주는 건 너무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 중, 고 교사들은 성교육의 중요성을 느끼지만 교육방법에서 고민을 많이하는게 현실인것 같다.

인형극을 보면서 실제로 아이들이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와 같은 말을 외쳐봄으로써 아이들의 유괴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더욱 효과적인 것 같고 실제로 말을 하면서 스스로 대처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 공연도중 실수할 때도 많았고 힘들어 그만두고 싶을때도 많았지만 인형극 도중 가끔 아이들에게 질문을 할때면 또박 또박 밝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서 힘든것도 잊고 보람을 느낄때가 많았다.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웃는얼굴로 공연에 임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다.

성폭력예방 인형극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성폭력 예방의 중요성과 대처방법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역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밀어주신 소장님이하 관계 직원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부족한 저를 많이 가르쳐주시고 해주신 유옥란 단장님 너무나너무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작지만 큰일을 해내는 그곳~~ 씨울여성회 핫~~팅

상담소 활동

■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동

▲ 전국 성폭력상담소 협의회 참석

2월 21일(월 오후 1시~5시 중앙대학교) 정기총회에 곽분이 소장과 류복연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곽분이 소장은 전성협감사로서 감사보고와 전성협소속 시민감시단에 씨울여성회가 진행하는 성폭력피해자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해준 시티뉴스 김영수 기자에게 특별상을 추천하여 받게하였다. 김영수기자는 언론기관으로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지속적이고 올바른 기사를 기재하였으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특별상을 받은 김영수 기자(가운데)

▲ 경기권역 성폭력상담소 협의회 워크샵

● 7월 7일 ~ 7월 8일(1박2일 경기도 광주한옥마을)

경기권역 워크샵에 곽분이 상임이사, 류복연 소장, 김영숙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경기권역 15개상담소의 대표들이 상담소 활성화 방안, 여성폭력 관련기관 경기권역 지리적 안배와 배치에 대한 토의, 기관 간 정보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결속력 강화에 대한 논의, 관련시설 기관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 교육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 제 9기 성교육 전문강사 교육생 수료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교육은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지식과 고정관념을 올바른 성 지식과 가치관의 확립으로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새로운 장을 펼칠 6명의 성교육 전문강사들이 수료하다.

5월 개강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에 진행한 초, 중, 고급 과정의 교육 일정은 7월 수료까지 3개월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수료생은 곽혜영, 구수정, 박경애, 배기명, 조형자, 하미경 선생님 축하드리며 멋지고 활발한 강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 모의강의를 하고있는 하미경(성교육 전문강사 교육생)



▲ 힘찬출발을 위하여!! (제9기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수료생)

■ 성폭력예방 인형극공연 - 내몸은 소중한요

6월부터 7월초까지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아동,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광주시 여성문화센터에서 “내몸은 소중한요”라는 주제로 10회에 걸쳐 약 2,000명이 관람하였다. 하반기에도 장애시설, 소외지역, 먼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 등에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인형극을 공연할 예정이다. 성폭력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요즘 어릴때부터 자신의 몸을 소중히 알고 인형을 통해 쉽고 재미있는 성폭력예방 및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을 상황별로 재현하여 일상생활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더운 날씨에 인형극 공연을 위해 애써 주신 유옥란 단장님, 이해영 총무님, 진갑선 단원님께 감사드린다.



▲ 인형극을 관람하고 있는 어린이집원생



▲ 뽀롱뽀롱이 신기해요...

■ 청소년 순회 성교육

모현초, 성보정보고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1학기동안 진행되었으며 만선 초등학교 찾아가는 성교육을 통해 성폭력예방 및 올바른 성가치관과 양성평등의식이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 하반기에는 초월초, 광지원초, 곤지암초, 경안중학교, 각 교실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성교육강사로 수고해 주신 강미정, 임복희, 권숙향 강사께 감사드린다.



▲ 정보정보고 장애인 성교육 강의(감미정강사)



▲ 모현초 장애인 성교육 강의(권숙향강사)

■ 성폭력 피해자치유 프로그램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은 개별상담, 집단상담, 회복캠프로 진행되고 있다. 7월에 시작하여 개별상담 2회, 집단상담 성교육 10회, 그리고 1박 2일의 회복캠프로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

■ 상담소 소장 이취임식

6월23일(목, 오후4시~6시)평화교회 소성전에서 상담소 소장 이취임식이 이루어졌다. 광분이 소장님은 척박한 광주에 NGO여성단체를 설립하여 10년을 하루같이 “씨울여성회는 폭력을 거부하고 새생명을 일궈감으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성장해 온 씨울여성회 광분이 소장님께 큰 박수를 보내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상임 이사님으로서 우리를 곁에서 이끌어 주실것입니다. 새로 취임하는 류복연 소장님은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씨울여성회가 행복한 여성, 살고 싶은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임하는 광분이 소장



▲ 취임하는 류복연 소장

■ 성교육 전문강사반 모임



매주 금요일(오전 10시)진행하는 성교육 전문 강사반은 우리 사회 건강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 대상별(아동, 청소년, 학부모, 직장인, 군인, 노인 등)성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모임이다. 상반기는 학부모 대상 성폭력예방 교육으로 '사랑스런 아이, 행복한 부모되기' 주제 관련 자료를 발제, 토의 및 책 <10대의 성, 유쾌한 섹슈얼리티>을 읽고 청소년

의 성(性)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반기는 '성희롱 예방교육', '노인의 성(性)이해'에 대한 공부를 진행할 뿐 만 아니라 대상별 강의도 진행 할 예정이다.

성교육 전문 강사로 강미정, 권숙향, 김영숙, 남태경, 류복연, 오마제, 임복희 선생이 참여하고 있다.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에 기여 할 성교육 전문강사 파이팅!!

■ 성교육 인형극반 모임

매주 화요일(오전 10시)진행하는 성교육 인형극반 모임은 아동과 장애 청소년에게 쉽고 재미 있는 성폭력예방, 양성평등 교육을 하기 위한 모임이다. 성교육 인형극 단원은 시나리오 구성, 인형 제작(다양한 인물, 동물, 요정, 등)을 통해 아동과 장애 청소년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모임은 상반기 약 2,000명의 아동에게 '내 몸은 소중한요' 라는 주제로 성폭력 예방(양성평등) 인형극 공연을 하였다.



▲ 한이임 성교육 인형극 단원(왼쪽 첫 번째)

하반기도 약 2,500명의 아동과 장애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공연을 하고자 열정적으로 공부와 연습을 하는 인형극 단원 권숙향, 김영숙, 유옥란(단장), 이해영(총무) 선생께 감사드린다.

* 한이임(전 총무)선생은 한양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인형극 단원에서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인형극 공연을 위한 기기, 물품 등을 끌고, 이고, 안고 광주(성남, 하남)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시설의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공연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몸이 많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결근하지 않으시고 초롱 초롱한 눈으로 '광주씨울인형극단'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 주신 한이임 성교육 인형극 단원님 참 고맙습니다.

■ 성범죄 고위험아동 ·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프로그램

6월부터~10월까지 성폭력 피해 청소년 및 성폭력피해 노출 고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문화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인과의 따뜻한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성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의 성행동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성적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7명의 멘티와 5명의 멘토가 멘토링 활동과 멘티의 집단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소용주슈퍼바이저, 권숙향, 김영숙, 남태경, 배기명, 안상미 멘토가 참여한다.



▲ 7월 8일 멘토교육을 하고 있는 소용주박사



▲ 8월 9일 멘토가 상담한 사례로 슈퍼비전을 받다

■ 성폭력예방 거리캠페인 행사

(사)씨울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광주시 후원으로 성폭력예방·양성평등 의식확산 거리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7월 20일 광주지역 청소년이 안전하고 양성평등한 지역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시민, 유관단체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시내 전지역 캠페인구간(구광주시청 ~파발교~송정교~이마트~역동~경안우체국~파발교~구광주시청)을 행진하면서 피켓 홍보, 전단지, 홍보물 배포로 안전하고 올바른 성 문화를 만드는데 동참하도록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광주시청, 광주경찰서, 지역의 유관단체께 감사드립니다.



▲ 7월 22일 성폭력 예방 거리 캠페인





‘좋은 생각이 행복을 부른다’

한 이발사가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젊은 도제를 한명 들였다.

젊은 도제는 3개월 동안 열심히 이발 기술을 익혔고

드디어 첫 번째 손님에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그 동안 배운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여

첫 번째 손님의 머리를 열심히 깎았다.

그러나 거울로 자신의 머리 모양을 확인한

손님은 투덜거리듯 말했다.

“머리가 너무 길지 않나요?”

초보 이발사는 손님의 말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
했다.

그러자 그를 가르쳤던 이발사가 웃으면서 말했다.

“머리가 너무 짧으면 경박해 보인답니다.

손님에게는 긴 머리가 아주 잘 어울리는 걸요.”

그 말을 들은

손님은 금방 기분이 좋아져서 돌아갔다.

두 번째 손님이 들어왔다.

이발이 끝나고 거울을 본 손님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말했다.

“너무 짧게 자른 것 아닌가요?”

초보 이발사는 이번에도

역시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다.

옆에 있던 이발사가 다시 거들며 말했다.

“짧은 머리는 긴 머리보다

훨씬 경쾌하고 정직해 보인답니다.”

이번에도 손님은 매우 흡족한 기분으로 돌아갔다.

세 번째 손님이 왔다.

이발이 끝나고 거울을 본 손님은

머리 모양은 무척 마음에 들어 했지만,

막상 돈을 낼 때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것 같군.”

초보 이발사는 여전히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다.

그러자 이번에도 이발사가 나섰다.

“머리 모양은 사람의 인상을 좌우 하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머리 다듬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요.”
그러자 세 번째 손님 역시
매우 밝은 표정으로 돌아갔다.

네 번째 손님이 왔고 그는 이발 후에
매우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참 솜씨가 좋으시네요.
겨우 20분 만에 말끔해졌어요.”
이번에도 초보 이발사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이발사는 손님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말했다.
“시간은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님의 바쁜 시간을 단축했다니 저희 역시 매우 기
뵈군요.”

그날 저녁에 초보 이발사는 자신을 가르쳐준 이발
사에게 오늘 일에 대해서 물었다.

이발사는 말했다.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대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손해보는 것도 있지.
또한 세상에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대네.
나는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네에게 격려와 질책을 하고자 한 것뿐이러네.”

(‘좋은 생각이 행복을 부른다’ 중에서)



광주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건강하게 자라다오”
자녀양육 교육



▶ 시부모와 함께하는
문화이해 교육

- 김치고장 한국으로 시집왔습니다.
- 한국어 교실 수업중에
- 2011년 상반기에 이런 활동을~

김치 고장 한국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딩티즈영 (한국어교실 보육교사)

저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지 5년 된 주부 딩티즈영이라고 합니다. 어제처럼 느꼈는데 지금은 두 아이 엄마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갔네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마음에 드는 대학교에 가는 것이 저의 큰 소망이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꼭 대학을 다녀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트남에서는 한국만큼 발전하지 못하여 회사와 공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들이 많이 배우는 것을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족은 경제적인 형편이 안되서 저를 대학에 보내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에게는 큰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는 것이 꿈이지만 부모님에게는 기쁨보다 걱정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집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꿈이 있지만 그 꿈을 키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하여 부모가 원망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번 생각했고 또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포기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대신에 고향에서 간단한 일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한국 사람을 만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

다. 한국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친구를 따라 갔다가 지금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우리 남편이 아주 날씬하고 피부가 하얗고 얼굴이 착하기도 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웃는 얼굴과 눈빛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 줄 수 있는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을 떠나 김치 고장 한국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한국은 너무 아름다운 나라로 만화속의 나라처럼 아름답습니다.

겨울에는 하얀 눈을 볼 수 있고 봄에는 꽃을 구경하는 것 참 재미있습니다. 가을에는 베트남 하늘처럼 맑고 깨끗합니다. 특히, 단풍 들 때 더 아름답습니다.

멀리서 보면 산이 큰 불꽃처럼 빨갛고 너무 예쁩니다. 한국은 참 아름다운 나라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생활을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언어와 음식, 문화, 기후도 맞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여러 번 혼자서 울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고향의 가족,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생활을 적응하기 위해서 저는 한국말을 배워야겠다

고 생각했습니다. 한국말을 배우면서 한국문화를 알게 되었고 한국생활이 차츰 재미있어졌습니다. 한국 김치도 맛있게 잘 먹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로서 한국말을 더 열심히 배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멋진 엄마를 보여주고 싶어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한국말을 배우고 광주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주 2일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항상 저를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제 마음이 너무 든든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남편이 곁에서 도와주고 응원해주시니까 저에게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제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노력하면 성과가 있을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한국어를 배워서 좋은 통역사가 되고 싶고 우리 아이에게 멋진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면서 어려운 것은 시택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해서 우리 부부는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싸울 때마다 저는 외로워져서 세상에 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한국에 더 이상 있고 싶은 마음이 없고 고향에 돌아 갈 마음 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통역사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우리 부부가 서로 화해해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말을 어느 정도하게 되니까 저는 통역사가 되고 싶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에서 읽었는데,

“추위에 떨어 본 사람 만이
태양의 소중함을 알 듯 ...”

그야말로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통역사가 우리 외국 사람에게 꼭 필요한 태양처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통역에 대한 일이나 한국에 시집 온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베트남어로 한국 문화에 대한 책을 만드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러한 꿈을 키우기 위해서 지난 7월에는 한국어 능력시험에 참여했습니다.

센터장님 덕분에 시험을 잘 봤습니다. 4급에 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경험으로 간다고 했지만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시험도 있었지만 그동안 한국에서 지하철을 꼭 한 번은 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소원도 이루게 되었고, 대학에도 한 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이루게 되어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꼭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왼쪽 이경자 한국어 강사, 오른쪽 텡티즈영

한국어 교실 수업중에



탕한메이 오른쪽 (중국) ▶

고슴도치

고슴도치는 밤송이처럼 등 위에 온통 뾰족한 가시가 나 있어요. 위험을 느끼면 가시를 세우고 몸을 동그랗게 말아 방어하지요. 고슴도치는 눈은 안 좋지만 냄새를 잘 맡아요. 밤에 주로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이에요.

刺猬

刺猬的背部就像一个栗球, 整个都是尖的刺, 感到危险的话就竖起身上的刺, 把自己卷成个球作为防守, 刺猬的眼睛不好但是嗅觉却很好, 善用气味, 基本上属于夜间活动的动物.

탕한메이

2011. 4. 1.



원정희(베트남) ▶

멧토끼

토끼는 커다란 귀를 갖고 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도 잘 듣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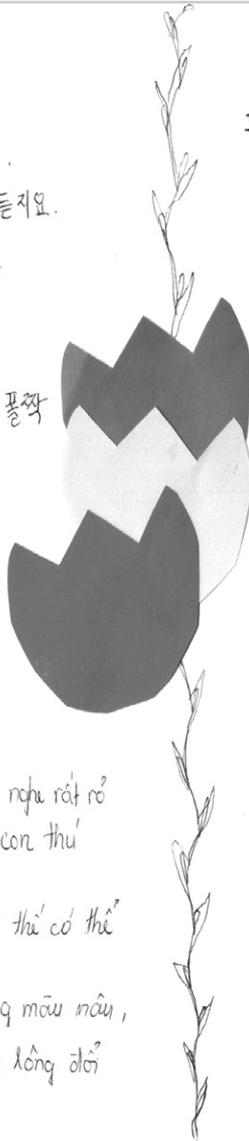
무서운 동물이 쫓아오면 깡충깡충
뒤어서 재 빨리 도망쳐요.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길어서 푹쭈푹쭈
잘 뛸 수 있어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갈색 털이지만
겨울이면 털갈이를 해서
보호색인 흰색으로 변해요.

CON THỎ

Con thỏ có mang tai to lớn
Nghe tiếng động nhỏ từ xa cũng nghe rất rõ
Chạy trốn nhanh khi bị những con thú
đáng sợ đuổi theo.
Chân sau dài hơn chân trước vì thế có thể
chạy rất nhanh.
Từ mùa xuân đến mùa thu có lông màu nâu,
nhưng khi chuyển qua mùa đông lông đổi
màu trắng để che chở.



고라니

고라니는 노루과에 속하는 동물로
노루보다는 몸집이 작아요.

털이

털은 노란색이며, 암수 모두 뿔이 없어요.

고라니는 사람을 봐도 놀라지않아서 산속에서
종종 볼수있어요. 하지만 달라기를 무척 잘해서
따라가기는 힘들어요.

겨울이면 눈이나 발에 내려와 떨어진
이삭이나 채소 찌꺼기를 먹기도 해요.

CON NAI

Con nai và con hươu là những con thú màu be
So với con hươu có kim vóc nhỏ hơn.

Lông màu vàng, tất cả giống đực và giống cái
đều không có sừng.

Con nai không ngạc nhiên khi thấy con người,
thỉnh thoảng có thể thấy ở trong rừng sâu.

Chạy vô địch vì thế rất khó khi đuổi theo.

Khi đến mùa đông thì đi ruộng đồng lúa hoặc
nông trại lượm những vỏ lúa hoặc những rau
xanh còn thừa để ăn.

원정희



▲ 푸엥다오(베트남) 한글교육 중급반 수업 중

한국 어린이에게 들려주는 베트남 이야기

탄지옹

베트남 고대국가 시대 전설에 나오는 영웅 이야기다.

노부부가 아이를 낳았으나 세살이 되도록 한 마디 말도 없이 방바닥에 누워먹기만 하였다. 어느 날 북쪽에서 외적이 쳐들어왔다. 아이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더늌곤 자라나서 건장한 청년으로 변했다. 청년은 산중턱에서 아름드리 대나무를 뿌리채 뽑아 흔들며 외적을 크게 무찌른 후 하늘로 사라졌다.

전티프엡타오

의상 문화와 여성

한국문화와 베트남문화가 같은 점이 있지만 다른 점이 작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는 전통의상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한복은 전통적인 의복이 있으면서 베트남에서는 아오자이는 전통복입니다. 아오자이는 한국처럼 걸은 지이나, 평결 때 많이 입고 학교에서도 많이 입습니다. 아오자이는 목부터 발목까지 걸쳐서 아오자이라고 부릅니다. "아오" 옷이라고 말하고 "자이"는 길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오자이를 길 옷이라고 말하거든요.

아오자이는 양쪽 허리가 조개져서 입을 때 불편하게 느끼는 겁니다. 특별히 한 것은 아오자이를 입으면 S라인이 확실하게 보여서도 불편하게 느끼고 어떤 일을 해도 불편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여성들이 아오자이를 입으면서도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참 특이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복은 입을 때 한국 여성들이 예쁜 몸매를 가리우고 일할 때는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복을 입거나 아오자이를 입거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통복에서는 그 나라의 오랫동안 전통문화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즈영 2011.7.1

2011년 상반기에 이룬 활동을

2011년은 이민 온 여성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지난해 프로젝트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계획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들의 생각들을 모아 보았다. 그러나 이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돈벌이 하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취업을 하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계획하여 지난해 미국장로교 한국선교회를 통하여 몇 사람의 장학금을 받은 것을 토대로 취업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취업교육도 가장 기본이 되는 한국어 습득의 문제이기에 한국어 교육에 열심히 해야 하는 이민 여성들의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반과 국적취득을 위한 준비를 겸하여 한국사회와 문화 이해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1. 한국어 교실

새해 벽두부터 몹시 추웠지만 새로 온 몇몇 이민여성들을 보고 두반으로 나누어 한국어교실을 시작하였다. 새롭게 이경자 선생님이 헌신적으로 이들을 섬겨 주셔서 감사한 일이다. 금년부터 화, 수, 금요일로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하였다.

3월 마지막 주부터 수요일에는 한국사회이해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국어와 함께 병행하는 것은 이들의 귀화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 일 시 : 1-6월 매주 화수금요일 오전 오후반
- 장 소 : 교육관, 사무실
- 강 사 : 이경자, 윤영애, 성명옥



▲ 초급반 이경자 한국어 강사



▲ 중급반 윤영애 한국어 강사

2. 한국어 교실 광주시와 경기도로부터 재 위탁을 받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광주시와 경기도로부터 한글교실을 하도록 재 위탁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주강사, 보조강사, 학생들 공부시간에 아이 돌보미(딩디즈영) 선생들을 모실 수 있어 감사하다.

3. 이민여성 가정에 설 선물 전달

설날을 맞이하여 '사랑의 친구들' 모임의 이순례 선생을 통하여 이민 여성들 30여 가정에 떡국, 소고기, 멸치 등이 들어 있는 한 상자씩 선물을 전달하였다. 감사한 일이다.

4. 예절 공부 실시

1월 28일에는 설을 앞두고 한복입기와 절하는 법을 공부하도록 하였다.

한복 부분의 명칭, 입는 방법과 큰 절하는 법과 평절하는 법 등을 공부하였다.



5. 설날 잔치

지난해 이어 금년에도 설과 보름을 맞이하여 '모두회'에서 설날 잔치를 2월 23일에 하였다. 떡만두국과 과일, 보름 깨는 것을 상징하여 땅콩 등 몇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게임과 춤을 함께 추면서 잔치를 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도록 하였다.

지난해 이어 이민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필리핀에서 온 김노라씨의 아들 김경수, 광남중학교 3학년에게 전달)



6. 행복한 가정 만들기 - 부부 관계증진 교육

부부들이 문화 이해 교육을 통하여 가족이 화목해 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남편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위한 교육을 3월 27일에 우리 교육관에서 실시하였다. 강사는 정천석 박사가 담당하였다. 18가정과 22명 자녀가 함께 하였다. (아산사회복지재단 후원으로 이루어 졌다)



7. 자녀 교육

5월 1일에 결혼이민자 부부들에게 <자녀 교육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김영미 교수를 모시고 교육관에서 실시하였다. 15가정 50명(애기 15명 포함)이 참석하였다. 이 프로그램도 아산재단의 후원 프로젝트로 실시한 것이다.



8. 취업 성공패키지 사업 실시

결혼 이민 여성들의 전문성을 가진 직업인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미국장로교선교부의 도움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광주고용지원센터의 협조로 4명이 등록하였는데, 피부미용으로 정도향, 양소운씨가, 한국요리로 쉐웬, 탕한메이씨가 등록을 하여 5월 한 달동안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교육과정을 마치고 피부미용은 성남의 엔비학원에서 5월 30일



부터 실전에 들어가 공부하고 있으며, 6월 말경부터는 한국요리를 성남 양재글로벌 직업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들이 3-4개월 공부하고 국가시험을 치기 때문에 합격하기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9. 시부모와 함께 문화 이해하기

6월 21일에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시부모를 모시고 문화 이해교육을 하였다. 강사는 운영애 선생님이 하였다. 10명의 시부모들과 이민여성들이 33명이 참석하였다. 이 사업도 아산사회복지재단의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이다.

10. 이민 여성들의 동정

1) 돌 및 출산

- 절자르갈 딸 수정 돌(1.29)
- 프영타오 딸 가영 출산(2.24)
- 투이지엠 둘째 아들 출산(3.23)
- 행찬토 둘째 딸 출산(3.25)
- 배선미(레티누구엔) 둘째 아들 권민오 돌(4. 2)
- 응웬티지엠 둘째 아들 출산 (4.23)
- 후인티란 둘째 아들 출산 (5. 7)
- 린훤 아들 출산 (5. 9)
- 당디즈영(베) 한국어 능력시험 4급 합격
- 윤은경(베) 한국어 능력시험 3급 합격

11. 상담 활동

가정 문제 : 15건, 취업문제 : 17건, 귀국 및 귀화 문제 : 22건,
건강문제 (임신, 출산 등): 3건

12. 기타 활동

- 광주여성연대 회의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회, 예산위원회 및 총회
- 수원출입국관리소 사회통합 경기남부지방 자문위원회의 참석
- 장신대 여동문회 총회 참석
- 광주고용지원센터 방문 2회
- 분당 아름다운미용학원 직원 면담
- 광주 코리아미용전문학원 방문
- 수원출입국관리소 외국인등록증 연기차 방문(조00)
- 성남지방법원 3회
- 예장 통합 이주민선교협의회 참석
- 서울노회 및 서울노회 전도목사 보고회 참석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참석
- 광주이주민단체협의회 참석
- 경기여성연대 회의 참석
- 지엠 출산시 최영일 산부인과병원 방문
- 광주클리닉 병원 출산시 방문(후인티란)
- 분당 차병원 출산시 방문(린혜)
- 배숙희 선교사 문병(서울대 병원)
- 김광휘 이사장 출판기념회 참석
- 한국목회자협의회(생명목회) 수련회 참석
- 광주시외국인시책위원회의 참석

13. 발 빌리크 몽골학교에 입학시키다.

우리 센터에서 공부하는 발체체크(몽골인)의 아들 빌리크가 엄마가 있는 한국으로 왔다. 몽골에서 중학교 1학년 다니던 학생이기에 서울에 있는 몽골학교에 전학조치를 5월 23일에 하였다.



씨울가족 소식

♣ 김신성이사

매사에 적극적이며 목소리에 힘이 넘치는 이사님!! 행사가 열릴때마다 물심양면으로 신경써 주시고 아낌없는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려요. 평화교회 사모로서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소외받는 여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씨울가족이 되신걸 환영합니다.

♣ 홍종순이사

미술을 전공하시고 이화미술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사님!! 광주에서 지금의 어린이집을 크게 확장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유치원을 만든다고 하네요. 씨울가족이 되신걸 환영합니다.

♣ 윤영애감사

본회의 감사이며 결혼이민자 한글교사인 윤영애 선생님이 서울여자대학교 50주년을 맞아 동창회의 이름으로 사회봉사상을 받았다.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여성지도자 배출이 목표인 모교의 설립 이념에 맞게 선교사업과 여성의 권익을 위해 헌신하여 모교의 이름을 빛냈고 바름 교육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후배 양성에 큰 역할을 함으로 동문의 자긍심을 높여준 공로로 쾌와 부상을 받았다.

시종일관 낭랑한 목소리, 넘치는 파워풀한 강의로 한국어수업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만드는 중급반 선생님, 본회 감사님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다.

방학동안 예전에 몸담고 일하셨던 러시아의 한글학교를 방문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건강하고 환한모습으로 다시 뵙게요.

♣ 유옥란감사

2008년부터 성교육 인형극 단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한결같은 인형극단의 대모로 지역 여러단체에도 봉사활동에 늘 바쁘시다. 본회 감사님이 되신걸 축하드리며 환영합니다.

♣ 임복희성교육강사

제2기 성교육전문강사로 상담자원활동과 학원강사로 활동하시며 다시 성교육 전문강사로 거듭나겠다고 열의를 보이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따뜻한 선생님!!

스터디에서 특히 빛을 발하시는 톡소리나는 강사님!! 환영합니다.

♣ 한이임 · 극단단원, 자원활동가

2008년부터 성교육인형극 총무로 비가오나 눈이오나 오로지 인형극 공연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한이임 총무님이 남편의 사업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하셨네요. 바쁘지만 매년 일일 카페 바자회행사를 맡아서 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복지 실습선생님들

- 조예원 선생님

아동보육을 전공하는 선생님답게 상담소,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교육관 아기자기하게 특색을 살려 잘 꾸며주었습니다. 말없이 일을 척척해내는 숨은 일꾼이며 아동심리를 전공하여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 하네요.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힘찬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 김현희선생님

아동보육을 전공하는 선생님이로 아이들과 잘 어울릴것 같은 귀여운 외모로 사무실을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좋아하게 꾸몄습니다. 맡겨진 업무를 차분하게 끝까지 해내는 짐착함을 살려 아동복지분야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 광분이 상임이사 칠순잔치

3월 5일 (영은미술관 4시~7시) 광분이 소장님의 고회를 맞이하여 긴 세월동안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투터운 정을 쌓아주신 여러친구, 동지, 가족들을 모시고 잔치를 열었다. 광분이 소장님은 모든 폭력을 거부하고 새 생명을 일궈가기 위해 광주지역에 씨을여성회를 만들어 폭력없는 지역, 살기 좋은지역, 여성이 행복한 지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해내셨다.

1부 감사마당을 시작으로 2부는 축하마당으로 지인들의 축가와 씨을가족들의 만수무강춤을 선보여 장내를 웃음의 도가니도 흠뻑 빠지게 했다. 오래 오래 저희들곁에서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 박경애 성교육강사

씨을여성회 회원이면서 제9기 성교육 전문강사로 미술치료를 공부하고 있는 열렬한 학구파이다.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 자원활동 중이며 국내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린 에이즈국제대회에 참가하여 에이즈를 제대로 알리는 행사에 참여하는 등 바쁜일정을 보내고 있다.

성교육에도 열정을 보여주는 선생님!! 화이팅

♣ **오희영 자원활동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하루도 빠짐없이 결혼이민자가족 중에 몽골에서 온 바기의 아들 빌리크에게 방학동안 한국어교육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셨다. 늘 찌렁찌렁한 목소리와 상냥함에 빌리크도 늘 싱글벙글이며 인사성도 밝고 어느새 한국어 실력이 늘어 농담도 곧잘한다.

열성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자원봉사 해 주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 **곽분이상임이나 표창장**

제16회 광주시 여성주간행사 기념식에서 성평등촉진과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곽분이 상임이사께서 표창장을 받으셨다.

곽분이 상임이사는 씨을여성회의 “모든폭력을 거부하고 새생명을 일궈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0년동안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 예방, 치유하는데 주력하셨다.

또한 광주지역의 양성평등확산과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한 깨어있는 여성으로 당당하게 성장하도록 의식교육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았다.



▲ 왼쪽 조옥종 광주시장, 곽분이 상임이사

♣ **이경자 한국어 강사**

길고도 추운 겨울에 우아하고, 곱고, 단정하신 모습의 이경자 성생님이 이주여성들의 한국어를 책임지시려고 오셨다. 선생님은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는 이주여성들에게 우리말(언어), 문화를 생활 속에 예를 드시면서 쉽고 재미있게 진행하시는 선생님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 **이혜영 인형극 단원(총무)**

성교육 인형극단 총무로 부임해 오신 선생님 환영합니다.
전 총무의 자리를 꼭 채우시느라 열정 반, 염려 반의 모습이 엇그제 같았는데 인형극 공연으로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극단은 내가 책임진다’는 신념과 각오가 넘치시는 샘 참 멋지십니다.

**** 후원받은 ‘자전거’ 전달하다.****
다문화 가정의 노라(필) 아들 김경수(중학교 3학년)학생에게 ‘자전거’를 전달하였다.



서가산책

책과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 씨올여성회에서 추천합니다.
작은 책이 세상을 바꿉니다.
- 편집 실 -

10대를 위한 가슴이 시키는 일

■ 저자 : 김이올 ■ 출판사 : 판테온하우스



네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

입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는 우리 청소년들. 나의 꿈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 오늘도 학교에서 학원으로 향하는 10대들에게 고하는 메시지. 베스트셀러 [가슴이 시키는 일]의 김이올 작가가 이번에는 10대 편 [10대를 위한 가슴이 시키는 일]을 출간했다. 인생의 향로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반환점에 선 10대들에게 자신이 정말 하고 싶고 가슴 뛰는 일을 하라는 희망이 야기. 10대들이 가장 닳고 싶은 9명의 롤모델이 들려주는 도전과 꿈 이야기는 아직까지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한 10대들에게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반짝반짝 빛나는 10대들이여, 꿈꾸고 도전하라. 그리고 그 꿈의 힘을 믿자.

덕혜옹주 : 조선의 마지막 황녀

■ 저자 : 권비영 ■ 출판사 : 다산책방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해도 나는 조선의 마지막 황녀였다.

조선의 마지막 황녀이자 일생을 정치적 희생자로서 살아야만 했던 덕혜옹주의 삶을 그린 소설로, 권비영의 오랜 작업 끝에 나온 장편소설이다. 망국의 황녀로 산다는 것은 천민의 삶보다 더 비참한 것이었고, 자신의 이름으로 오롯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의미했다. 아버지 고종황제의 죽음을 목격하고, 일본에 끌려가 원치 않던 결혼, 그리고 이혼 등을 통해 무너져버린 그녀의 삶은, 대한제국이라는 망국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읽는 내내 우리의 가슴을 조여 온다. 저자 또한 쓰지 않고 견딜 수 없었다던 그녀의 잔혹한 일생의 서막이 우리 앞에 다시 펼쳐지는 순간이다.





왜 여성대통령인가 여자가 대권을 잡으면 과연 세상이 나아질까



■ 저자 : 크리스틴 오크렌드 지음, 이희수 옮김 ■ 출판사 : 호미하우스

권력은 더 이상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여성과 남성, 통치방식의 차이에 관한 논리적 접근과 명쾌한 해답 『왜, 여성대통령인가』. 영국의 대처, 독일의 메르켈, 칠레의 바첼레트 등 오늘 날 세계 정치에 큰 영향을 끼쳤던 최고의 여성 지도자들의 성공과 좌절, 야망과 상처를 현 시점에서 날카롭게 분석한 책이다. 정치권력의 최정점에 도달한 여성들을 집중 분석하여 국가와 문화, 정치 체계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정권의 속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여성 정치인의 강점과 그녀들에 대한 주변의 평가 등을 종합하여 여성 권력자의 초상을 그려본다. 남성들의 성희롱에 가까운 비난과 일그러진 시선들을 극복하고, 여성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어필했고 정국을 이끌어나갔는지 자세히 보여주면서 여성 역시 권력에 도전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뛰어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10대의 너, 유쾌한 섹슈얼리티

■ 저자 : 변혜정 ■ 출판사 : 동녘

10대는 자신들의 미래 찾기를 위해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찾기보다 스스로 무엇을 하면서 재미있게 지낼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즐겁게 일하며 살 수 있을지 자신들의 욕망부터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10대의 섹슈얼리티도 '그들 알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1년 씨을여성회 활동

씨을여성회는 다양한 사업, 교육, 모임, 행사 등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여성, 남성, 학생 등 참여를 기다립니다.

사무국에서는...

■ 독서토론 모임

- 일 정 :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오전10시~11시30분)
- 대 상 : 관심있는 분 누구나
- 참가비 : 무료(단 책은 본인부담)

■ 후원행사 : 생명·평화·사랑·나눔의 일일카페 / 바자회(연중)

- 일 정 : 5월 20일(금 정오~오후8시)~10월
- 내 용 : 기금마련 재정사업

■ 여성주간행사

- 일 정 : 7월
- 내 용 : 여성들의 인권향상과 의식개선

■ 여성단체 연대활동

- 경기여성연대 : 분기별 운영위 모임, 3·8여성대회 행사, 정기총회등
- 광주여성연대 : 분기별 운영위 모임, 사업진행등

■ 회원의 날

- 일 정 : 11월
- 대 상 : 씨을여성회 회원, 자원활동가



상담소에서는....

- 성교육활동가 심화교육(매주 금, 오전10시~ 12시)
- 상담활동가 심화교육(넷째주, 월 오전10시~12시)
- 성교육(양성평등)인형극반 모임 (매주, 화 오전10시~12시)
- 제6기 성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9월5일~12월5일)
- 제10기 성교육전문강사양성교육(5월26일~7월14일)
- 성교육 진행(초,중,고등학생)
- 성폭력피해자치유프로그램(3월~12월)
- 성교육인형극 진행(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 찾아가는 무료(연중) 상담
- 성폭력예방, 양성평등확산 거리캠페인행사 : 7월, 11월



2011년 제 6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100시간)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지원을 위한 전문상담활동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해 활동 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정 : 9월 5일 ~ 12월 5일(매주 월요일)

■ 장소 : 서울 여성회 교육관

횟수	일시	시 간	강 의 내 용
1	9/5	9:00~12:00	오리엔테이션 /우리사회의 여성의 문제
		13:00~16:00	한국사회의 성문화
		16:00~18:00	섹슈얼리티 이해
2	9/19	9:00~12:00	상담의 이론과 실제
		13:00~16:00	전화상담의 이론과 실제
		16:00~18:00	여성주의 상담
3	9/26	9:00~12:00	성폭력 개념과 이해
		13:00~16:00	성폭력 상담원의 성인식 바로보기
		16:00~18:00	페미니즘의 이해
4	10/10	9:00~12:00	성의 역사
		13:00~16:00	유형별 성폭력 실태와 대책(장애인)
		16:00~18:00	성폭력피해의 의학적인 대응방안(산부인과)
5	10/17	9:00~12:00	성폭력 관련 법의 이해
		13:00~18:00	성폭력 피해자이해 및 치유상담
6	10/24	9:00~12:00	성폭력 가해자의 이해
		13:00~18:00	사이버(인터넷) 성폭력의 이해
7	10/31	9:00~12:00	성폭력 관련 비디오 감상/토론
		13:00~18:00	one-stop지원센터 기관방문
8	11/7	9:00~12:00	직장 내 성희롱 실태와 대책
		13:00~16:00	성폭력 사건의 법적 절차
		16:00~18:00	성매매 피해 여성의 실태와 대책
9	11/14	9:00~12:00	유형별 성폭력 실태와 대책(아동)
		13:00~16:00	유형별 성폭력 실태와 대책(청소년)
		16:00~18:00	유형별 성폭력 실태와 대책(데이트)
10	11/21	9:30~18:00	성폭력 상담 실무실습(전화, 면접)
11	11/28	9:00~18:00	성폭력 상담 실무실습(전화, 면접)
12	12/5	9:00~12:00	성폭력 사건 법정 참관(동행)
		13:00~18:00	여성주의 상담원의 역할과 비전
		18:00~20:00	수료식

제 10기 성교육 전문 강사 양성교육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교육은 우리사회 잘못된 성지식과 고정관념을 올바른 성의식과 가치관을 새롭게 확립할 수 있는 성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교육 수료자는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서 성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므로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정 : 10월 7일 ~ 11월 25일(매주금요일)

■ 장소 : 서울 여성회 교육관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일정	시간	강의내용	일정	강의내용	일정	강의내용
10/7	10:00 ~ 12:00	- 오리엔테이션 - 성교육 목적과 성교육강사의 자세	10/28	- 장애인에 대한 성교육	11/18	- 신나는 성교육을 위한 스피치기법
	13:00 ~ 15:00	- 페미니즘		- 새롭게 보는 동성애		- 유치부 대상 모의 강의 및 평가
	15:00 ~ 17:00	- 청소년의 성문화 이해하기		- 대중매체 속의 성의 이해		- 초등저(고)학년 대상 모의강의 및 평가 - 중학생 대상 모의 강의 및 평가
10/14	10:00 ~ 12:00	- 발달단계에 따른 성교육	11/14	- 내 몸의 소중함과 성평등, 성폭력이해	11/25	- 고등학생 대상 모의 강의 및 평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모의강의 및 평가 - 직장인을 대상 모의강의 및 평가 - 장애인 대상 모의강의 및 평가
	13:00 ~ 15:00	- 성의 역사		- 자기성애(자위) 성충동		
	15:00 ~ 18:00	- 십대의 성/ 자기 성 결정권		- 성과 사랑(포르노)		
10/21	10:00 ~ 12:00	- 성교육의 방법론	11/11	- 이상형의 성		
	13:00 ~ 15:00	- 인터넷 음란물 바라보기		- 성의 과학 I 성기구조, 성기 차이		
	15:00 ~ 17:00	- 여성주의 시각의 성교육		- 성의 과학 II 임신, 피임, 낙태, 성병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원 활동가 (인증센터로 자원 활동시간 증명 해드립니다.)

- 상담활동 : 전화 및 면접 상담 활동
- 사무활동 : 자료수집과 우편물 발송, 사무지원, 홍보 활동 등
- 기타활동 : 강의, 법률, 의료지원활동 등

회원(CMS) 가입

회원(CMS) 가입으로 회비를 내시면 씨얼여성회 정회원이 될 수 있으며, 씨얼여성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의 10% 할인 혜택과 씨얼여성회 정기 간행물을 보내드립니다. 납부하신 후원금액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회원(CMS) 가입, 재정후원, 물품후원, 상담활동, 교육활동, 사무활동, 기타 등

후원계좌

씨얼여성회 : <농협> 221012-51-026543 (예금주: 씨얼여성회)

<국민은행> 248-01-0047-636 (예금주: 씨얼여성회)

상 담 소 : <농협> 221012-51-026577 (예금주: 씨얼여성회)

광주결혼이민자지원센터 : <농협> 221012-55-001893 (예금주: 씨얼여성회 결혼이민자)

<농협> 221012-56-078829 (예금주: 성명옥)

<국민은행> 248201-04-052615 (예금주: 성명옥)

2011년 상반기 후원에 주신분들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과 따뜻한 격려 그리고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반후원

가재민, 강지혜, 강미정, 강천심, 곽분이, 곽혜영, 권숙향, 고미란, 구본숙, 경원사회복지회, 기독교여의사회, 김신성, 김선광, 김광휘, 김영숙, 김혜원, 김상규, 김경옥, 김태규, 김후남, 김미향, 김영자, 김진, 대한전문건설협회, 류복연, 문대골, 민말순, 박경애, 박용래, 박연준, 박영자, 박정순, 박치학, 배현덕, 배현주, 분당남부교회, 성명옥, 서문교회, 서영주, 성미경, 송찬규, 송파여성신도회, 송정교회, 심준영, 신지호, 신행숙, 소병훈, 신당중앙교회, 신당중앙교회 제4여전도회, 신동현, 용성산업개발, 윤혜경, 윤정한, 윤식남, 유옥란, 윤정희, 오마제, 예지교회, 예심교회, 이선범, 이은선, 이정자, 이형숙, 이상호, 이승학, 이지윤, 이명원, 이미정, 이미경, 임복희, 장윤경, 정인숙, 정정자, 조정옥, 지희순, 천덕희, 최호중, 최선영, 최창곤, 태원법무법인, 한상윤, 함석헌기념사업회, 황선락, 한기숙,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이임, 한상윤

♥일일카페

강미정, 강관희, 강순원, 곽혜영, 곽현근, 관주영, 광주문화원, 광주시여성의 쉼터, 경기여성연대, 경원사회복지회, 꽃보리지역아동센터, 김수남, 김정림, 김현신, 김선자, 김영, 김인란, 김진, 김해수, 김지영, 김정옥, 김숙자, 김선광, 김신성, 김광휘, 김수영, 김영자, 김만복, 김원실, 강릉바다 생선구이, 남태경, 노티화, 다솜식당, 다시함께센터, 다문화센터, 두레방, 동태찜, 데이지문구, 명성사진관, 법무법인다운, 부길만, 박용래, 부이티향(이무중), 배현덕, 박경애, 상현교회, 산본교회, 상현약국, 사랑채, 사람과 평화, 성모이주여성의 집, 세상의빛 선교교회, 성수삼일교회, 신화부동산, 현대세탁소, 송희향, 신춘자, 신행숙, 신동현, 서장성, 신지호, 설광섭, 송찬규, 손윤미, 야반식당, 양은미, 양미식, 안나, 안상미, 안예순, 역새풀, 여성교회(양계성), 여성가족과, 여신협, 오영자, 우순덕, 유옥란, 유지훈, 윤금영, 윤영애, 윤혜경, 윤옥균, 윤은경, 윤정한, 이수영, 이해학, 이명희, 이선범, 이숙자, 이경이 노래교실, 이해영, 이성규, 이경자, 이덕영, 이은선, 임종성, 이우경, 이강희, 이성경, 장금자, 장윤경, 장형옥, 정미애,

정수빈, 찐티짱, 조은가정의학과, 조인숙, 조의숙, 즈영, 주민교회, 채석연, 최예리, 최종례, 최병주, 최탁균, 최미숙, 최돈석, 최미정, 최영실, 한영애, 한걸음치킨, 한수정미용실, 한숙희, 황선락, 하광상공회의소, 향린교회, 하남Y성폭력상담소, 하남광주교육청, 한이임, 한정혜

♥물품후원

강희수(화분1개), 광혜영(옷1가방), 광주시여성의 쉼터(화분1개), 광주시여성가족과(화분1개), 광주시푸드뱅크(콩나물, 수정과5박스, 녹차라떼10박스, 음료수118박스, 수제비, 냉면4박스, 과자4박스, 양념5박스, 초코렛19박스, 과자, 콩나물16박스, 김16박스, 간식류7박스, 배추 300포기, 염색약11박스), 광주대한전문건설협회(화환1개), 구광팡(깨, 참기름5봉지), 권숙향(악세사리1가방, 컴퓨터스피커1개), 금비공영(주)(화분1개, 식사4인분), 김광휘(참기름4박스), 김신성(식사16인분), 김영숙(식탁보외 5개, 식사8인분, 신발2가방, 의류, 자전거1대), 김지영(신발2가방, 옷1가방, 과일1봉지, 딸기1팩), 네티브이(음료수1박스), 대원성가정상담소(음료수1박스), 두레방(책, 수건37개), 류복연(동화책1박스), 리에우(음료수1박스), 린다(음료수1박스), 바렛사(과자4박스), 박경애(콘돔1박스), 박용래(김5박스, 양말, 비누48개, 과자2박스, 청소도구4개, 건강약품4개), 박은희(가방, 의류3가방), 바기(음료수3박스), 변천초(음료수1박스, 참외2박스), 보김록(계란20개), 보티투송(초코파이2통), 사랑의친구(떡국세트30개), (주)서진산업(식사9인분), 송파교회(칠판, 책장, 등3개), 시아근(옷1가방), 안의정(음료수2박스, 수박1통), 예수장로회(기독교청년회, 화분1개), 오마제(가방, 액세서리, 의류4가방), 오명화(쌀 60kg), 오혜란(옷2가방), 왕짱(식사4인분, 만두1봉지), 용인성폭(커피1박스), 유경아(베트남커피1봉지), 유옥란(옷2가방, 액세서리, 떡5팩), 윤영애(식사8인분, 옷6가방, 식사3인분, 상추1박스), 윤혜경(옷1박스), 응웬티녹(호박, 가지3봉지), 이경자(케익2개, 식사7인분), 이민자남편(음료수5병), 이웅(박은주, 옷2박스), 이해영(음료수1박스, 옷1가방), 장형옥(과자1박스), 즈영(옷1가방, 오렌지1박스, 음료수1박스), 이지은(빵1봉지), 찐티짱(굴1박스), 차명령(굴1박스, 돈나물, 파2봉지, 토마토1박스), 최선영(음료수2박스, 꽃바구니1개), 하광상공회의소(콘돔1박스), 하미경(딸기, 음료수2박스), 한국어학생(중국, 파10단), 한이임(떡6팩, 악세사리1가방), 홍종순(식사6인분)

♥ 자원봉사활동

강미정 강선경 강슬휘 강예빈 강준구 강진형 강태홍 강해랑 강현아 강효경 고성일 고은애
 고하은 곽민준 곽태호 권혜림 김가영 김가현 김경아 김도희 김래정 김민경 김민정 김민지
 김서영 김성민 김성수 김성현 김세희 김소영 김수민 김수연 김수정 김영민 김영채 김영택
 김예린 김정은 김주연 김주현 김재경 김지영 김지원 김진나 김진선 김진원 김현아 김현희
 김환정 김희주 김희진 나혜수 남보현 남소현 남태경 노지우 문소희 문수련 문수현 문희지
 민건영 민지영 민태원 박라희 박민주 박범수 박세민 박소진 박수빈 박이도 박정현 박초희
 박태호 박현주 배유진 백윤지 브티반 서수빈 설지희 성다운 송혜진 시아근 신승환 신재훈
 신혜원 심기철 심다희 심소현 심재원 안대민 안영민 안유정 안유하 안재경 안지영 안진영
 안해원 양예림 양재영 양채원 엄세빈 연지혜 오마제 오명석 오수빈 오승택 왕홍련 유민지
 유아라 유옥란 유재현 유정인 유지현 윤단비 윤성준 윤영애 윤예진 윤정현 윤찬영 이경서
 이경자 이기준 이다혜 이덕영 이명진 이소연 이수진 이아름 이아현 이연승 이영주 이예은
 이우진 이재원 이정은 이지우 이하은 이한나 이현민 이혜영 이화준 이효민 임나윤 임도휘
 임동욱 임민서 임새찬 임수은 임아영 임정우 임지현 임하나 장유빈 장창수 장혜지 전미정
 전성재 정소현 정송립 정수한 정승조 정영서 정은진 정지수 정지희 정현식 조민지 조성현
 조현웅 조혜정 주예찬 즈 영 지윤미 진귀영 췌티짱 차재영 채정훈 천선영 최다빈 최민지
 최용천 최유빈 최은우 최종천 최하람 투 송 한동훈 한상구 한윤주 한이임 한주희 홍명호
 황민진 황세린 황수린



씨울 여성회 회원(CMS)가입신청서

씨울 여성회는 폭력으로부터 고통 받는 여성을 보호, 예방, 치유하고 결혼이민자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작은 불씨가 되고자 합니다.

후원자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H · P	
이 메 일			
자동이체	예 금 주		
	은 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월 1만원	<input type="checkbox"/> 월 2만원	<input type="checkbox"/> 월3만원
	<input type="checkbox"/> 월 5만원	<input type="checkbox"/> 월10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출 금 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상기 본인은 씨울 여성회의 회원(CMS) 가입에 동의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인)

※ 회원혜택

1. 교육수강비 10% 할인이 됩니다.
2. 특강, 워크샵, 보수교육 등에 무료 또는 실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자료집, 소식지등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 정보, 자료 등을 신속·정확하게 받아보거나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5. 기부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MS 자동이체는 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움이 없이 지정한 날짜에 약정하신 금액이 자동이체 되는 안전한 후원방법입니다.

사단법인 씨울 여성회 이사장 김 광 휘
 소 장 류 복 연
 센터장 성 명 옥

씨을여성회에서 하는 일

씨을은 생명의 기본원리로 스스로 자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초월합니다. 씨을사상은 인간의 자주성을 짓밟는 모든 폭력에 저항하는 것으로 씨을여성회는 이러한 씨을사상을 이어받아 가부장제 사회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과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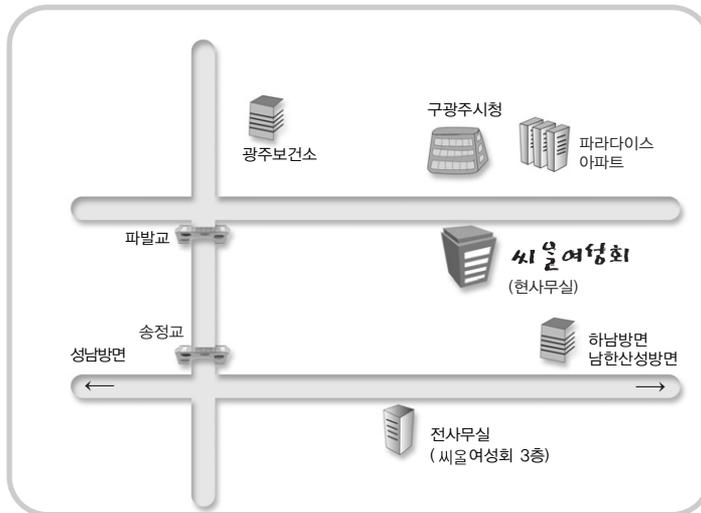
<p>상담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와 관련된 전화, 면접상담 및 연계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집단 상담 및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진행
<p>교육활동</p>	<p>가정폭력 전문 상담원교육 및 재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및 재교육 - 성교육전문강사 양성교육 및 워크샵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여성의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을 위한 의식교육 - 한글교육 양성평등교육 한국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 부부교육, 자녀양육교육
<p>소그룹 모임</p>	<p>상담활동가 워크샵 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교육 전문강사 워크샵 모임 - 독서 토론반 모임 - 지지그룹 모임
<p>연대활동</p>	<p>경기여성연대, 광주여성연대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단체, 시민 단체들과의 교류 및 연대 활동 - 인권단체 및 외국인 노동자 센터들과 연대활동
<p>여성 인권활동</p>	<p>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 인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여론화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치 참여 및 의정 방청 활동 - 취업알선 및 연계
<p>문화, 홍보활동</p>	<p>씨을여성회 회보 발간(연2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을여성회 홍보물 제작 - 결혼이민자를 위한 소식지 발행

| 부설기관 |

<p>성폭력 상담소</p>	<p>◎ 성폭력 피해자 상담, 치료프로그램 및 법률, 의료적 지원, 심터연계 및 동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예방교육과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성교육 인형극 전문강사 양성교육
<p>광주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p>	<p>◎ 개별상담, 가족상담, 치료프로그램 및 법률, 의료지원, 심터연계 및 동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한국전통문화교육 및 체험, 외국문화이해교육 - 가족교육, 부부교육, 자녀양육교육, 가족캠프



씨얼여성회 찾아오시는 길



- ▣ 대중교통 이용 : 강변역(1113-1) '파라다이스 아파트' 앞 하차 (50분 소요)
 교대역(500-5) '파라다이스 아파트' 앞 하차 (50분 소요)
 모란역(3-1) '파라다이스 아파트' 앞 하차 (30분 소요)